

대한제국기 청주지역 근대교육과 지역운동사상 의의

김형목*

-
- I. 머리말
 - II. 인식변화와 교육열 고조
 - III. 청주지역 근대교육의 전개양상
 - IV. 지역운동사상 의의
 - V. 맺음말
-

I. 머리말

러일전쟁 발발과 ‘을사늑약’ 전후로 근대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자강·계몽단체 활성화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단체는 국권회복을 표방하는 가운데 근대교육에 적극적이었다. ‘한일합방’ 직전까지 설립된 6,000여 개교에 달하는 사립학교나 야학 등은 이와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¹⁾ 물론 지역에 따라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1) 국사편찬위원회, 1965, 『한국독립운동사』 1, 탐구당, 359쪽 ; 김형목, 1998, 「사립흥화학교(1898~1911)의 근대교육사상 위치」, 『백산학보』 50, 백산학회, 289~290쪽 ; 김형목, 2005,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90쪽. 『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20일 잡보 「교육계 물론」에서 5천 여 개교

운영된 교육기관은 많은 편차를 보인다. 그리함에도 근대교육은 이전보다 확산·보급될 수 있었다. 계몽론자들은 이를 “사회적인 책무이자 의무”로서 인식·실천하였다.

국권회복운동 일환으로 전개된 근대교육운동은 지금까지 외형상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근대교육사나 민족운동사 연구 진전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자강단체 활동과 운동가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교육이념, 운동주체의 성격 등은 대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지역별 사례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주요 학교나 개신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대교육 실상을 규명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청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 연구는 근대교육기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²⁾. 대한제국기 충북지방 근대교육운동·야학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을 통하여 근대교육 실태는 개괄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계몽운동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³⁾

충청도는 서울·경기·황해·평안도 등지에 비해 계몽운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이는 지역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분위기 등과 무관하지 않았다. 청주를 포함한 충북지방은 후기 의병전쟁 중심지였다. 의

로 파악하였다. 이는 「사립학교령」 시행 이후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합·폐합된 상황을 반증한다.

- 2) 청주지편찬위원회, 1961, 『청주지』, 청주시 ;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1975, 「충북의 신교육 발달상황」, 『충청북도지』, 충청북도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민족교육의 전개와 항일투쟁」, 『독립운동사-문화투쟁사-』 8 ; 김영우, 1986,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II)」, 『교육연구』 3, 공주소법대학.
- 3) 진순동·최동준, 1999,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증원문화논총』 2:3, 충북대 증원문화연구소 ; 김형목, 2002, 「한말 충청도 야학운동의 주체와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형목, 2002, 「한말 충북지방의 사립학교설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한국근현대사학회 ; 김형목, 2005, 「충청지역」,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 김형목, 2011, 「충청북도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김형목, 2013, 「한말 충북지역의 국권회복운동」,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병들은 대체로 근대교육에 비교적 부정적이었다.⁴⁾ 의병전쟁 격화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으로 계몽운동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점차 극복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개신유학자나 ‘개명학’ 지방관은 근대교육 보급에 열성적이었다. 이들은 기호흥학회 청주지회를 조직하는 한편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섰다.

이 글은 한말 청주지역 근대교육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위상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교육열 고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설립취지와 달리, 대부분 사립학교는 민지계발에 치중되었다. 곧 “사립학교설립운동=국권회복”보다는 시세 변화에 따른 능력배양을 위한 실력양성에 목적을 두었다. 이어 전개양상도 살펴보았다. 교과목은 국한문·산술·습자·역사·지리·외국어(주로 일어-필자주) 등 공립보통학교와 유사하였다. 일부는 부분적으로 축소·시행되었다. 향교 내 설립된 명륜학교는 전통교육에 치중하면서 산술·역사·지리 등을 추가하는 정도였다.⁵⁾ 외형적인 교과목 편성과 달리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교사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근대교육이 청주지역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의를 파악하였다. 운영주체는 지방관리·교사·실업가·개신유학자 등 지역유지와 선교사였다. 이는 적극적인 항일보다 합법적인 영역에서 전개되는 배경이었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격언처럼 현상만으로

4) 『大韓每日申報』 1907년 11월 13일 잡보 「敎員砲殺」; 김희근, 1998, 「안동 협동학교의 독립운동」, 『우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 II, 나남; 박민영, 1996, 「1908년 경성의병의 편성과 대한협회 경성지회」, 『한국근현대사연구』 4,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박민영, 1999,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에 재수록; 김형목, 2016, 「함경북도 경성의 사립합일학교유지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안동 협동학교 교사인 金基秀安商德 등 살해는 근대교육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용인보통학교 생도살해사건과 양근 용문학교 방화사건 등도 마찬가지이다. 단양 의병들도 공립보통학교 교원 吳寔相을 살해했다. 반면 함북 대한협회 경성지회 회원들은 의병진의 임원이거나 든든한 후원자였다.

5) 김형목, 2002, 「앞 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김형목, 2002, 「앞 글」, 『한국근현대사연구』 23.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변수가 이면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지역 근대교육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II. 인식변화와 교육열 고조

1890년대 중반 시작된 근대교육은 부국강병을 위한 시무책 일환이었다. 야학도 근대교육기관의 한 영역으로 운영되는 등 교육적인 수혜의 저변을 넓혔다. 더불어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도 미약하나마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협성회·만민공동회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하였다.⁶⁾ 토론회·강연회 주제는 대부분 근대교육이나 민지개발과 관련되었다. 『협성회회보』·『미일신문』·『독립신문』·『황성신문』 등은 근대교육과 관련된 사례를 상세하게 보도하였다.⁷⁾ 기사 중 민족이나 민족주의 강조는 이러한 의도와 맞물려 있었다.

근대교육 중요성은 일찍이 朴泳孝에 의하여 의무교육(일명 強迫教育-필자 주)으로 제기되었다. 보수적인 지배층은 별다른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朴殷植은 민중교육론 일환으로 學區에 의한 의무교육을 주창하였다. 특히 빈민 자제나 노동자·농민을 위한 근대교육기관으로 야학에 주목했다.⁸⁾ 그럼에도 근대교육은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다만 근대교육 시행을 위한 각종 교육법령 정비는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904년 흥학 조칙은 분위기 반전을 견인하는 촉매제였다.⁹⁾

6) 김동면, 1981, 「협성회의 사상적 연구」, 『사학지』 15, 단국대 ; 정영희, 1985, 「협성회 연구」, 『논문집』 9, 인천대 ; 김호일, 2005, 「개화-애국계몽기의 학생운동」, 『한국근대 학생운동사』, 선인.

7) 김형목, 1998, 「앞 글」, 295쪽 ; 정영희, 1999, 「사립흥화학교에 관한 연구」, 『실학사상연구』 13, 무악실학회, 114~115쪽.

8) 박은식전서편찬위원회, 1975, 『박은식전서』 중, 단국대출판부, 23쪽 ; 신용하, 1982, 『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서울대출판부, 70~74쪽.

9) 『고종실록』 권44, 1904년 5월 23일.

‘을사늑약’ 전후로 근대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무교육론은 개진되었다. 새로운 지식인층 형성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군·면을 단위로 시행된 의무교육은 학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강화도·김해·해주·의령·평양·포천·안악 등지에서 시행된 의무교육은 지방자치제를 위한 일환이었다.¹⁰⁾ 활동가들은 지방자치제 시행에 앞선 기초적인 과제를 민지계발로 인식하였다. 근대교육을 통한 지적 능력은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기반이자 지름길이었다. 특히 향회·민의소·농회 등과 각종 계몽단체는 이를 주도하는데 앞장섰다.¹¹⁾

청주지역 근대교육운동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듯,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다. 사립학교 설립주체는 전·현직 지방관리나 교사·개신유학자·선교사 등 다양하였다. 운영비 대부분은 기부금·의연금 등으로 충당되었다. 일부지역은 주민의 생활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일종의 ‘의무교육비’였다. 관내 노동자 전원은 피교육생으로 수용되는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다.¹²⁾

유생들도 시세 변화와 더불어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05년 사립학교 설립의 확산에 따라 분위기는 조성되었다. 이는 성리학적 분위기나 영향력이 비교적 미약한 서울과 서북 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과급되어 나갔다. 유생들은 향교를 근대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속 전담 등을 학교운영비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각지의 명륜학교는 향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문중을 단위로 하는 이른바 ‘문중학교’도 설립되었다. 1901년 신규식·신채호·신백우 등은 문중자체의 근대교육을 위한 문동학원을 세

10) 김형목, 1997, 「자강운동기 한성부민회의 의무교육 시행과 성격」, 『중앙사론』 9, 중앙대, 87~90쪽 ; 김형목, 2005, 「대한제국기 강화지역의 사립학교설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1) 김형목, 2001, 「한말 해서지방 야학운동의 실태와 운영주체」, 『백산학보』 61, 백산학회, 220쪽.

12) 『大韓每日申報』 1909년 12월 2일 학계 「忠郡有校」 ; 김형목, 2002, 「앞글」, 『한국근현대사연구』 23, 38쪽.

었다. 이들은 학생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문의와 미원의 중간 지점에 설립하였다. 시세 변화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근대학문을 보급하기 위함이었다.¹³⁾ 일부 사숙·의숙 등도 근대학문을 교과목으로 수용하는 등 변화되고 있었다.

개신교 전래와 더불어 선교사업 일환으로 근대교육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20세기 접어들면서 개신교는 청주에 전래되었다. “밀러(閔老雅 : F. S. Miller-필자 주)씨와 김홍경씨가 1904년 청주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도시의 매우 훌륭한 청년들이 이미 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하나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¹⁴⁾ 당시 운영된 사립학교는 1904년 설립된 광남학교(청남학교 전신-필자 주)였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광남학교 설립시기를 1903년 파악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문물과 더불어 근대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은 구축되었다.¹⁵⁾ 청주를 중심으로 괴산 등지에 설립된 개신교계 사립학교는 이를 반증한다.

심지어 친일단체조차도 근대교육에 동참하는 상황이었다. 동아개진교육회를 계승한 제국실업회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¹⁶⁾ 제국실업회 충북지회도 상권보호 등을 구실로 조직되었다. 부대사업인 회원들 자체교육은 학교 설립·운영으로 이어졌다. 지회장은 공금을 횡령하는 등 교육을 핑계로 험잡질을 일삼았다.¹⁷⁾ 일진회 청주지회도 주민들 보호에 나섰다. “일진회에서 대구지회 개회 시찰차로 총대 몇 사람을 금일 파송하였는데, 이번 청주지회 被打事로 해 총대 回路에 청주에 들어가 조사 질문하려고 전보를 보내더라.”¹⁸⁾

13) 『황성신문』 1908년 5월 13일 잡보 「開明花樹」, 5월 14일 논설 「高靈申氏의 學契影響」, 5월 15일 잡보 「靈川學契」, 5월 24일 잡보 「興學勸告」; 입춘수, 1990, 「신규식 신채호 등의 산동문중 개화사례」, 『윤병석교수화갑기념한국근현대사논총』, 동간행위원회.

14)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역사편찬위원회, 1998, 『충북노회사료집』, 53쪽.

15) 진순동·최동준, 1999, 「앞 글」, 96~97쪽.

16) 조재곤, 2001,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해안, 274~275쪽.

17) 『大韓每日申報』 1909년 5월 28일 잡보 「李氏落科」.

한편 1908년 5월부터 충남 서산지회를 비롯한 충북지방에 기호홍학회 지회도 조직되었다. 본회는 公函을 통하여 취지를 전달하는 한편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¹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략)… 第念各郡鄉校는 多土藏收之所요 一鄉首善之地니 理宜設立學校호야 培養人材호고 啓導文明호야 爲之標準호야 使村里賢味로 皆能知所慕效호고 爭相興起호야 絃誦之聲이 達于四境호면 可以事半而功倍矣어늘 側耳已久에 寥寥無聞호니 是誠寒心者也로다 且學校之設이 每患無材호는니 毋論某郡호고 鄉校所有財産이 槩可成立一校어늘 不此之爲호고 徒作校中消融之資호니 豈非名實之不相副耶아 閣下가 職在分憂호야 興學一事가 爲今日報答 國恩之第一事件니 幸 不待人勸호고 己有定筭이로디 區區一念이 不能自己호야 有此煩陳호오니… (하략)…²⁰⁾

즉 “각 군에 소재한 향교는 ‘一鄉首善之地’로서 이곳에 마땅히 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 과거 인재를 배양하고 문명을 계도하는 중심지는 바로 향교였다. 향교에 부속된 재산만으로도 당장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각 군수는 모름지기 학교 설립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홍학을 도모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¹⁾ 홍학은 지방관의 주요한 책무로서 인식되는 동시에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 지방관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진전되는 계기를 맞

18) 『황성신문』 1905년 3월 2일 잡보 「派員察會」.

19) 편집부, 『기호홍학회월보』 1, 48쪽 ; 편집부, 『기호홍학회월보』 2, 56쪽 ;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9일 잡보 「기호홍학회에서 기호인사에게 발송한 전문이 여좌호니」 ; 『황성신문』 1908년 4월 7일 잡보 「홍학회 권유 ; 기호홍학회에서 일반인사에게 권유함이 여좌호니」.

20) 기호홍학회, 『기호홍학회월보』 3, 51~52쪽.

21) 洪正裕, 「興學講究, 轉學의 病」, 『기호홍학회월보』 10, 2~3쪽.

았다.

1909년 12월 현재까지 설립인가 된 기호흥학회 지회는 19개였다. 충남 8개소, 경기 7개소, 충북 4개소 등 충남에 가장 많이 설립되었다.²²⁾ 충북지방에 인가된 지회는 충주·청주·제천·영동 등이었다. 사립학교설립운동 진전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능하였다. 지회원들은 학교 설립·운영자이거나 후원자·교사 등이었다.²³⁾ 이들 대부분은 바로 근대교육운동의 주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다른 정치사회단체 지회는 전혀 조직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인 멸시·천대를 받던 불구자도 사립학교 설립에 의연금을 기꺼이 제공하였다. 야장과 백정도 은사금을 사립학교설립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분위기를 반전시켰다.²⁴⁾ 이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야학운동도 진전되었다. 점원이나 노동자를 위한 ‘야학교’나 ‘야학교’의 운영은 교육수혜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즉 자신의 의지 여하에 따라 종래 특권층의 전유물인 교육수혜는 민중에게 가능할 수 있었다. 가정부인들은 문맹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계기였다.²⁵⁾ 물론 이는 극히 제한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한글에 대한 관심과 상용화를 위한 한글연구는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진전되었다. 국문야학(한글야학-필자 주) 성행은 한글에 대한 고조된 관심사를 반증하는 부분이다.²⁶⁾

「사립학교령」 이후 야학은 점차 근대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한 영역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²⁷⁾ 야학은 1913년까지 법령에 의한 통제를 전혀

22) 김형목, 2001, 「기호흥학회 충남지방 지회 활동과 성격」, 『중앙사론』 15, 한국중앙사학회, 41~42쪽.

23) 김형목, 2002, 「앞 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51~53쪽.

24) 『황성신문』 1909년 5월 4일 잡보 「兩氏其人」, 5월 7일 잡보 「簿校成立狀況」.

25) 『만세보』 1906년 10월 12일 논설 「女子教育會의 知識程度」; 김형목, 2000, 「한말·1910년대 여자야학의 성격」, 『중앙사론』 14, 한국중앙사학회, 47~49쪽.

26)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26일 논설 「國文學校의 日增」;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29일 논설 「국문학교의 증가」.

27) 김형목, 2002, 「앞 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45~48쪽.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제는 이를 이용하는 등 식민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청주를 비롯하여 제천·충주·직산·옥천 등지에 설립된 수십 개의 노동야학·국문야학은 운영되었다.²⁸⁾ 근대학문을 수학한 학령아동과 노동자는 수백 명에 달하였다. 배움에 대한 욕망은 야학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향학열 고조로 이어졌다.

근대교육 보급을 위한 교육단체 조직에 부응한 호서인들 활동도 활발하였다. 윤병섭·최병창 등은 취지서를 공포하는 등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²⁹⁾ 민지계발을 위한 지름길은 우선적인 과제로서 근대교육 보급을 중시하였다. 재경유학생들로 조직된 호서학생친목회는 귀향활동 일환으로 교육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³⁰⁾ 이들은 고향에 설립된 사립학교·강습소·야학의 명예교사로 활동하거나 직접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였다. 이는 주민들에게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첩경이었다. 소중한 체험은 일제강점기 야학운동을 추진하는 정신적인 유산이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산림령」 시행은 측량기사에 대한 수요가 일시에 급증하였다.³¹⁾ 당시 전국 각지에는 측량강습소나 학교 부설로 측량속성과가 속속 설치·운영되었다. 일제의 토지침탈에서 벗어나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보성학교 부설인 측량과 운영도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문중을 단위로 운영된 학교는 측량과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³²⁾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주지역 교육운동은 진전을 거듭하였다. 계몽운동이 전반적으로 미진한 속에서 충북지방에서 운영된 1909년 10월말 현재 교육기관은 이를 반증한다. 서당은 686개소에 재학생 4,916

28) 김형목, 2015, 「옥천의 근대교육운동」, 『옥천군지-역사와 전통』 II, 104~105쪽.

29)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4일 잡보 「湖西學會趣旨書」, 7월 19일 잡보 「賀湖西興學會又」.

30)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26일 학계 「호서학회소문」.

31) 『황성신문』 1908년 6월 11일 논설 「林業科의 必要」, 6월 13일 잡보 「林業法의 注解」.

32)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8일 잡보 「김씨중증설교」.

명, 공·사립보통학교는 102개교에 재학생 5,472명 등이었다.³³⁾ 교원은 총 330명이었다. 서당은 숫자상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수용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사·지리나 산술 등을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일부 개량서당도 운영되었다. 반면 사립학교는 5,500여 명에 달하는 학령아동을 수용하는 등 근대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공교육 부진은 이와 같은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Ⅲ. 청주지역 근대교육의 전개양상

‘을사늑약’ 이전까지 사립학교에 의한 근대교육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형편이었다. 1901년 청주군 유생 申興雨 등은 향교 내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운영비 조달은 물론 직접 학생들을 모집하여 가르치는데 열성을 다했다. 학부는 그를 교원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³⁴⁾ 이후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근대교육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은 아직 이곳 지역사회에 파급되지 않은 사실을 반증한다.

일본어 보급에 중점을 둔 ‘일어학교’는 성행하는 분위기였다. 1904년 청주군 金原培는 자담으로 일어학교를 세웠다. 松下彦熊을 교사로 연빙하자, 40여 명 학도는 일시에 호응하였다.³⁵⁾ 이듬해 李周瓊·林海淑은 진천군 開川市에 ‘일어학교’를 설립한 후 山本登을 교사로 초빙하였다. 인근 거주자 중 입학지원자는 다수에 달했다.³⁶⁾ 옥천군 淨土教會長인 洪承弼도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관아 건물을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요청하고 나섰다.³⁷⁾ 이 학교는 정토교 포교와 합

33) 『大韓每日申報』 1909년 11월 13일 학계 「書堂何多」; 김형목, 2002, 「앞 글」, 『한국근현대사연구』 23, 42쪽.

34) 『황성신문』 1901년 5월 9일 잡보 「敍任及 辭令」.

35) 『황성신문』 1904년 5월 10일 잡보 「私立日校」; 김형목, 2002, 「앞 글」, 『한국근현대사연구』 23.

36) 『황성신문』 1905년 8월 24일 잡보 「鎭川日校」.

37) 『황성신문』 1905년 8월 1일 잡보 「沃倅報告」; 김형목, 2015, 「계몽운

게 일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일어학교’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지신사들을 자극시키는 계기였다. 괴산군수 민영은은 속성과와 보통과로 구성된 始安學校를 설립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다. 입학 연령은 속성과 20세 이상과 보통과 8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나이를 하한선만 규정한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수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출석 학생만 9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³⁸⁾ 학교장은 설립자인 군수가 겸임하였다. 전참서 洪範植·우영명과 전군수 민치완·송순명 등은 의연금 모금에 적극적이었다. 서울거주 鄭永澤은 찬성장으로 활동하는 등 근대교육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³⁹⁾ 서울에서 전개되는 계몽운동에 관한 소식은 현지인들을 크게 자극시켰다.

군수 민영은과 서울 거주하는 정영택 등은 1905년 청호학교를 설립했다. 학교가 경비난에 직면하자, 민영은의 1천 원을 비롯하여 참령 윤영성과 해미군수 민영희 등은 1백 원 기부금을 의연금으로 내었다. 전·현직 관리 110여 명도 동참하는 등 재정적인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교과 과정은 중학과·사범속성과·고등소학과·심상소학과 등으로 편성하였다. 중등교육·사범교육·초등교육을 겸비한 ‘종합교육기관’이었다.⁴⁰⁾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은 재정 부족과 부족한 교원 등에서 기인되었다.

이 학교는 이듬해 9월 보성중학교로 개칭과 아울러 중등교육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주요 학과목은 수신·한문·작문·역사·지리·박물·이학·화학·도서·법학·농학·체조·일어·영어·창가 등이었다. 수업기간은 4년, 입학자격은 15세 이상 30세 이하였다. 입학 시험과목은

동], 『옥천군지-학문과 전통』 II.

38) 『황성신문』 1905년 9월 4일 잡보 「槐郡設校」.

39) 『황성신문』 1905년 9월 23일 광고 「槐山郡守 閔泳殷氏가 私立始安學校를 設호았는디 其補助금이 如左 하니」.

40) 『황성신문』 1906년 1월 31일 광고 「淸州私立淸湖學校 第一回 義捐錄」, 7월 31일 잡보 「淸校夏試」; 이용철, 2016, 「대한제국기 민영은의 관직활동과 계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1~12쪽.

국문·한문·독서·작문·지지·역사·산물 등이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교장은 학교 설립을 주도한 정영택이 맡았다.⁴¹⁾ 다만 교과목을 담당한 교사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여 구체적인 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쉽다.

보성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장기적인 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교우회를 조직하였다. 발기인 정영택을 비롯하여 이장로·임검재·정태은 등이었다. 의연금 수금소는 서울 종로 황성신문사 내에 두었다. 취지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략)... 今日校友로써 限하고 暇日로써 報答의 義務가 急務함이로다. 立會의 名義를 守호야 寸效를 得호즉 書生의 受哺를 免호가호는 바라. 學業의 完成은 學校가 鞏固함에 在호고 友道의 輔益은 此會회가 發達함에 在호리로다....(중략)...大흡다 學問이여 重흡다 智識이여. 存亡生死를 招호고 逆善惡忠을 擇호는 바라. 內로써 學問을 刻하며 苦호야 文明의 精神과 骨子를 立호고 外로써 智識을 廣하며 換호야 國家의 砥柱와 基礎를 固케함이 吾輩의 責任이라. 四海의 人을 友호며 會함이 此會로써 始호지라. 心을 同호며 力을 戮호야 勉호며 進호지어다.⁴²⁾

지식 보급·발달은 이 단체가 지향하는 바였다. 이는 국가 지주와 기초를 공고히 하는 기초 과정이었다.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부장 각 1인, 각부 위원 2인, 회계원 2인, 각부 위원보 각 4인 등이었다. 부서는 문예·무예·위생·서무로 구성되었다. 교우회는 회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관내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까지 모색하였다. 회원 자격은 교직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었다.⁴³⁾ 이는

41) 『황성신문』 1906년 9월 5~25일 광고 「학원모집광고」.

42) 『만세보』 1907년 1월 17일 잡보 「淸郡校友會」; 『황성신문』 1907년 1월 17일 잡보 「淸州郡普成中學校校友會趣旨」.

43) 『만세보』 1907년 1월 17~18일 잡보 「淸郡校友會」.

충북지방에서 조직된 최초 학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우회는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에 의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유학생 단지동맹에 대한 동정금 모금 활동은 이를 반증한다.

嗚呼痛哉. 二十一人 同胞學生이여. 忠君愛國지誠으로 離親
棄墓호고 留學遠邦다가 經濟窘乏에 難遂素志호야 心血決議호
고 斷指同盟호니 像想其當場景況 則髮衡比裂에 血淚沾襟이다.
若 我二千萬同胞 知其二拾一人 烈士之血性 則莫석萬금지財하
고 勿送慈善지금하야 使遂本志케하면 國家幸甚 同胞幸甚.

淸州郡 普成中學校校友會

發起人 鄭永澤 리章魯 任謙宰 鄭泰殷

但 義捐금 領收所는 京城 鍾路 皇城新聞社內.⁴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긴급광고였다. 또한 교우회 임원진의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수 윤태홍도 근대교육 보급에 대단히 적극적이였다. 그는 각 면장과 이장 등을 소집하여 학령아동을 조사하여 보성학교로 입학할 권유하였다. 학령아동 중 경비곤란으로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을에서 이를 공동부담하게 했다. 인재양성을 위한 그의 노력은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인식변화를 수반하는 계기였다.⁴⁵⁾ 지방관의 적극적인 관심사는 근대교육 시행에 절대적인 요인이였다.

광남학교는 방흥근·김태희·김원배 등에 의하여 개신교 전래와 더불어 설립되였다. 교실은 방흥근이 사저를 제공하였으며, 학교장은 김태희가 맡았다. 설립 당시 학생은 15명으로 2개 반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다. 1907년 7명과 1909년 1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근대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1907년 졸업생 중 설립자인 방흥근이

44) 『황성신문』 1907년 1월 17일~2월 8일 광고 「긴급광고」 ; 『大韓每日申報』 1907년 1월 23일~2월 1일 광고 「긴급광고」.

45) 『大韓每日申報』 1907년 12월 25일 잡보 「淸守獎學」.

고등과 졸업생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대교육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로서 주목된다.⁴⁶⁾ 청주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던 민노아는 학교설립자들과 자주 회합을 가졌다. 서울에서 경신학교를 운영한 경험은 학교 운영에 많은 조언을 줄 수 있었다. 학교가 경영난에 직면하자 1908년 민노아는 학교 운영권을 인수 받아 청남학교로 명칭 변경과 동시에 교장으로 취임했다.⁴⁷⁾ 또한 여성 교육을 위한 여학교를 운영하는 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앞장섰다. 재정적인 확충은 교육내실화와 더불어 청주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었다. 졸업생들은 일제강점기 이곳 문화·계몽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청주기독교청년회와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 강연회 개최나 야학 운영 등은 이를 반증한다.⁴⁸⁾

서면 덕촌 하동 정씨 집성촌에서는 덕신학교 이전 宗學稷가 조직되어 문중 자체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鄭在浩(1839~1899)였다. 종인들과 상의한 후 중학계를 조직하여 상세한 규약을 정비하고 학사를 마련하여 經史를 비치하였다. 1901년 5월 24일 간재 전우는 직접 청주로 와서 강회를 열었다. 강회에는 문학생 3~4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당시 이곳에는 정두현과 정해관의 里塾이 있었다.⁴⁹⁾ 이를 기반으로 1906년 鄭淳萬 주도로 덕신학교는 운영되었다. 1909년 당시 교장은 정재봉, 교감 정태현, 교원 정두현·오완영 등이었다. 이후 오완영 대신 황홍주가 부임하였다. 1911년 당시 교장은 정윤중, 한문·역사·지리교사 정두현, 국어·체조·산술·작문·이과·도화·장가교사 신후영이 맡았다.⁵⁰⁾ 덕신학교는 이때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

46) 진순동·최동준, 1999, 「앞 글」, 98쪽.

47)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역사편찬위원회, 1998, 『앞 책』, 101쪽.

48) 『기독신보』 1927년 11월 2일자, 1928년 10월 24일자.

49) 전우, 1984, 「간재선생연보」, 『간재선생전집』 권3, 보경문화사.

50) 박걸순, 2016, 「정순만의 교육구국사상과 덕신학교」, 『덕은재(덕신학교) 복원 기념 학술세미나(발표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8~22쪽.

다. 이곳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덕신학교는 1919년 폐교되고 말았다. 폐교 이후 덕신학교 재학생들은 옥산공립보통학교로 편입되었다.⁵¹⁾

청주지방재판소 서기와 군주사 등도 열성적이었다. 중심인물은 바로 서기 이조원, 번역관 박윤양·남보원, 군수사 고희승 등이었다. 이들은 보성학교 내에 법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강습소를 운영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다음 기사는 이들의 열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충청북도 청주군 지방판소 서기 리조원 번역관 박윤양 남보원 군수스 고희승 제씨가 그 고을 인민이 법률에 몽이함을 개탄히 녀겨 법률과를 그곳 보성학교에 설립하고 명예로 열심교수한다더라.⁵²⁾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법률강습소를 설립하여 명예교사로 자원하였다. 법관양성소 출신으로 보성법률전문학교 부설로 법률강습소를 운영한 경험은 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었다. 당시 임원진은 총무 안만수, 감독 고인석, 서기 김덕준·이조원, 간사원 정운락 등 3인, 재무원 유정렬 등 15인, 강사 이풍구 등 20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국제보상운동 참여와 대한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⁵³⁾ 법률적인 무지로 인한 손해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이를 야학으로 운영하는 등 피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산이외면 오창식·신응휴·김후곤 등도 신명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웠다. “새로

51) 정순만, 「덕신학교」, 『디지털청주문화대전』.

52)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9일 잡보 「관리열심」.

53) 『관보(2884)』 광무 8년 7월 21일 「학사」; 『황성신문』 1904년 7월 16일 잡보 「養成卒業」, 8월 4일 관보 「서임급 사령」, 1907년 6월 21일 광고, 1908년 6월 13일 잡보 「借校講習」; 편집부, 1909, 「회원명부, 본회 회원」, 『대한협회회보』 19.

은 문명세계”를 건설하지는 가르침은 바로 교훈이었다. 특히 김후곤은 근로 청소년을 위한 야학교를 설립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 열성을 다하였다. “청주군 산외이면 지천동 신명학교교사 김후곤씨가 교비를 자담하여 특별히 1개교를 설립하고 충준한 자제를 모집하며 서적을 널리 구하였다. 血誠激勸에 一鄉이 翁從뿐 아니라 文明域에 開進發達을 自擔함에 其勇進無退함을 無不贊頌한다더라.”⁵⁴⁾ 이러한 분위기는 관내로 파급되는 등 향학열 고조로 이어졌다. 상호간 교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설계하는 등 자신감을 배양시켰다.

산내이하면 삼산리 오용현·오영석·오한식·오창식·오정식 등 보성 오씨 문중은 청홍학교를 세웠다. ‘청홍’은 충청도를 대표하는 교육 기관으로 발전을 염원하는 의미였다. 비록 문중학교였으나 다른 문중 자제를 입학까지 허용하였다. 개교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학도가 5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⁵⁵⁾ 면장 오창식은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명성을 얻었다.

덩주군 산내이하면 삼산에 사는 오창식씨가 면장으로 스무도 공평히 잘 볼 뿐더러 그동리 즈기중중에 청홍학교를 설립하고 각동에 잇는 종인들과 타인들까지라도 열심히 효유하여 입학케 함으로 학도가 스십여명이나 되고 그 학교 정황이 차츰 성취된다더라.⁵⁶⁾

그의 열성적인 활동은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에너지원이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이를 반증한다. 이 학교도 1915년까지 운영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 일익을 담당했다.⁵⁷⁾ 외일하 면장 박봉래는 교육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면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학령아동의 입학을 권유하였다. 또한 빈민자제를 위한 사립학교

54) 『황성신문』 1909년 5월 11일 잡보 「新明校의 金氏」.

55) 『황성신문』 1910년 8월 17일 잡보 「淸校其興」.

56) 『대한매일신보』 1910년 7월 16일 잡보 「면장권학」.

57) 『매일신보』 1915년 4월 14일 지방통신 「충청북도 청홍학교 발전(청주)」.

를 설립하는 등 헌신적인 활동을 펼쳤다.⁵⁸⁾

북면 오근리 김인성·이명세·김영식·이근세·김규일 등은 강신각과 부속 전답으로 청오학교를 설립했다. 근대교육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인식한 이들은 마을 공동답을 재정적인 기반으로 삼았다. 군수 김대규는 관내를 순행하면서 의연금 모집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관의 술선수범하는 자세는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학생은 일시에 백여 명이나 호응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⁵⁹⁾ 문중학교로 출발한 이 학교도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유생도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일환으로 근대교육 동참을 마다하지 않았다. 향교나 전통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명륜학교는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장규는 청주지역을 대표하는 한학자였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명륜학교 설립은 청주뿐만 아니라 호서지역 유림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清州郡 居 李章珪氏는 湖西名儒로 教育이 時急함을 慨然히 覺悟호고 不瞻淸호 財產을 傾호야 金貨 四百五十圓을 該郡 明倫學校에 捐助호였슴으로 該校 凡百이 日益振興호야 學員이 五十名에 達호였는디 李氏의 教育上 熱心호은 湖西儒林界에 嚆矢됨이라고 萬口讚揚호다더라.⁶⁰⁾

유학자의 근대교육기관 설립은 청주지역 최초로서 주목을 받았다. 물론 교육과정은 신·구학문을 절충함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할 수 있었다. 더욱이 운영비로 450환을 의연하는 등 재정적인 확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⁶¹⁾ 그에게 근대교육 시행은 사회적인 책무로서 인식되었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변화를 추동시키는 밑거름이었다.

근대교육은 물론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일부 유학자들은 이를

58)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29일 학계보 「박씨설교」.

59)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3일 학계 「청오학교설립」.

60) 『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10일 학계 「湖西喜聞」.

61)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9일 잡보 「호중에 데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산 金昌淑이 성주 청천서원에 사립성명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때 현지 유생들은 “김창숙이 나고 청천이 망하고 말았다.”라며 격렬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에 “누가 무어라고 해도 욱해도 좋다. 내가 어찌 내 선조를 잊으며 유림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의도가 진정으로 이해되기를 바랐다.⁶²⁾ 유생 이장규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찬사는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오늘날 충청북도는 교육의 진취함이 다른 지방만 못함이 만흔지라. 지금에 충청북도 인스들은 그 정신을 심히 분발하며 그 슈단을 심히 민첩하게 써야 가히 늬의 뒤에 썩러지지 아니홀지니 오호!라. 제씨는 힘쓸지어다. 지금 세상이 발거서 태양이 중툰에 잇는 것갓흔 이썩에 잇서서 오히려 태고뵤 황씨의 시더니 꿈을 꾸어서 슈화중으로 드러가는 자가 잇는가. 우리는 이를 위하여 심히 두려워함을 말지 아니호노라.⁶³⁾

더욱이 의병전쟁의 격화와 사회불안에 따른 경제난도 사립학교설립 운동을 저지시키는 요인이었다. 일부 의병들은 학교나 교사·학생 등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일제의 경제적인 침략에 따른 생존권 위협은 자제교육을 부차적인 문제로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⁴⁾ 그럼에도 사립학교설립운동 확산되고 있었다. 청주지역 근대교육기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한제국기 청주지역 근대교육기관⁶⁵⁾

62) 권기훈, 2007, 『심산 김창숙 연구』, 선인, 76~77쪽.

63)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6일 논설 「충청북도를 향하여 혼 번 치하호는 말을 붓치노라」.

64) 『만세보』 1906년 9월 16일 논설 「農産」, 10월 14일 논설 「借款風說」, 10월 16일 논설 「教育費」, 10월 21일 논설 「農形」, 10월 27일 논설 「經濟界」, 12월 8일 논설 「民情」, 1907년 4월 27일 논설 「窮極則通」.

65) <표 1>의 大는 『大韓每日申報(국한문혼용판)』, 대는 『대한매일신보(한글판)』, 황은 『황성신문』, 매는 『매일신보』을 각각 의미한다. () 안은 후임자이다.

설립 년도	학교명	장소	설립·운영자	학생수	출 전
1901	문동학교;문 중학교	청주	신흥우·신채호 등		황1901.5.9; 『단체전집』
1904	일어학교	청주	김원배, 송하언웅;일어	40	황1904.5.10
	광남학교;청 남학교	청주 청남문 밖	김태회·방흥근 · 김원배,김태 회(민노아);교장	15;초기	大1907.7.9-10.3;『청주 시지』;『졸업대장』
1905	청호학교	청주	민영은;군수 등, 정영택;학교장	중학과,사 범속성과, 고등과,소 학과	大1906.1.30,1.31,1907. 1.20-2.1,5.2,12.25,190 8.4.29;황1906.4.27,9.5, 11.12;대1908.11.22
1906	보성중학교; 청호학교를 확대 승격	청주	민영은;군수 등, 정영택;학교장	중등과정 교원양성	大1906.1.30,1.31,1907. 1.20-2.1,5.2,12.25,190 8.4.29;황1906.4.27,9.5, 11.12;대1908.11.22;만 1907.17-18
	덕신학교	청주 서면 덕촌	하동정씨 문중, 정순만 정재봉;교장,정 태현;교감,정두 현·오완영·황 홍주·신후영; 교사	다수	大1909.4.27;『삼세합 교』;이근우의 졸업증·수업증서· 포증서
1908	문중학교	청주 산동	신씨문중, 신태휴;관찰사		대1908.6.5,6.11
	연흥학교	청주 강서면	유지제씨		大1909.2.2
	보성학교;잠 업학교	청주	조병목;교사		大1909.2.11;대1909.2. 11,1910.5.13
1909	신명학교	청주 산외이면 지천동	오창식·신응휴 · 김후곤김후곤 ;교사		大1909.4.9,5.11,1910.4 .16;대1910.4.21
	신명학교지	청주	김후곤;교사		황1909.4.9,5.11

	교	산외이면 지천동			
	명륜학교	청주	이장규 등	50	대1910.4.9,4.16;大1910.4.10
	법률전문강 습소	보성학교 내	이조원;재판소 서기,박윤양· 남보원;번역관		대1909.3.19
	사립학교	청주	실업가 등		황1910.1.14
1910	노동학교	청주	이상우;진위대 군인	80	황1910.3.24;大1910.3.25;대1910.5.24
	청오학교	청주 북면 오근리	김인성·이명세 ·김영식·이근 성·김규일	100	大1910.4.10
	청흥학교; 문중학교	청주 산내하 삼산리	오용현·오영식 ·오한식·오창 식·오정식	50	황1910.8.17;대1910.7.16;대1915.4.14

<표 1>은 당시 모든 사립학교를 망라하지 않았다. 개량서당을 비롯한 근대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의숙·사숙 중 상당수 누락되었기 때문이다.⁶⁶⁾ <표 1>에 나타난 학교는 당시 비교적 잘 ‘알려진’ 교육기관이라고 짐작된다. 당시 신문 기사 대부분은 직접적인 취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소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 만큼 학교 관련 기사 중 상당수는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덕신학교에 관한 기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기록을 통하여 덕신학교는 1906년 설립되어 1919년까지 13년간이나 운영되었다. 특히 일제강점 이후 대다수 사립학교는 공립보통학교로 통합되거나 폐교되는 상황을 맞았다. 현재 남아 있는 학교연혁지 등은 식민지 당국자에 의하여 왜곡·축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66) 김형목, 2002, 「앞 글」, 『한국근현대사연구』 23, 50쪽.

IV. 지역운동사상 의의

설립·운영주체는 전·현직 관리와 유지 등이었다. 이들은 지방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서, 사실상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었다. 이는 사립학교 설립하거나 후원자로서 역할을 자임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중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영은은 1901년 이래 충청북도 괴산군수·연풍군수·보은군수·음성군수·청안군수·진천군수·충주군수·청주군수와 충청북도 관찰사 서리를 역임하는 전형적인 관료였다. 1905년 괴산군수 재직시 시안학교를 세웠다. 과정은 속성과와 소학과로 출석생은 90여 명에 달하였다.⁶⁷⁾ 청주군수 재직시에는 가옥 개선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부역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청호학교(이후 보성중학교로 발전) 설립하는 등 관내 근대교육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고등보통과 입학자격은 만 25~30세, 소학과 8~20세로 교육내실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⁶⁸⁾ 사범속성과와 고등보통과는 교사 양성을 위한 과정이었다. 관내 의무교육 시행 계획은 이와 맞물려 진전되었다. 청호학교는 충북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인 보성중학교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런데 ‘의무교육비’ 강제 부과는 주민들 원성을 초래하는 요인이었다.⁶⁹⁾

林業經營에도 힘써 1908년 이래 충청북도 청주군 와우산 일대 44정보에 낙엽송을 심었다. 청주군 북일면과 미원면에도 식수하여 이 공로로 조선총독부와 도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안중근의거 이후 일진회는 ‘한일합방청원서’를 발표하는 망국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각지 지회원들은 퇴회하는 등 임원진에 대한 적

67)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29일 잡보 「田價請給」; 『황성신문』 1910년 1월 14일 잡보 「校長快學」.

68) 『만세보』 1906년 12월 4일 잡보 「淸州民戶結構」, 1907년 4월 27일 잡보 「刑全證規相左」; 『大韓每日申報』 1906년 1월 30일 광고 「學員募集」, 1월 31일 광고 「淸州私立淸湖學校 第一回 義捐錄」, 1907년 12월 25일 잡보 「淸守獎學」.

69) 『만세보』 1906년 8월 8일 잡보 「淸倅取怨」.

대감을 드러내었다. 교장 민영은은 학생들에게 일진회는 하나의 매국 단체에 불과하니 전혀 현혹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연설하였다. 생도 중 일진회원 자제들은 부모에게 이를 알리자, 즉각적인 일진회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 일진회원 자제들을 출교 처분하였다.⁷⁰⁾ 특히 대한협회·기흥흥학회·대동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계몽론자로서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형적인 활동과 달리 실체는 근대교육을 통하여 지지세력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강제병합 이후 친일적인 활동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⁷¹⁾

신명학교 교장과 청흥학교 교감 등을 역임한 오창식은 1875년 2월 청주군 산내이하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보성으로 부친은 오영호이다. 그는 보성부원군 오천복의 18세 손에 해당된다. 선조들은 이곳에 세거한 이래 재지사족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면장 재직시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여 주민들 신망을 받았다.⁷²⁾ 이를 기반으로 근대교육 보급에 열성을 다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견인할 수 있었다. 교육계에 헌신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정용택은 송강 정철의 13대 손으로 본관은 연일이다. 1858년 7월 청주군 북강외일면 탐동리에서 태어났다. 한문을 수학한 후 청주군주사 등을 역임하였다. 관계에서 은퇴한 후 근대교육 보급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한학에 대한 출중한 능력은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는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보성중학교 한문교사, 청오학교 교장, 청보학교 교장 등도 역임할 만큼 교육에 적극적이었다.⁷³⁾

민노이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1892년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민노야학당을 설립하는 등 교육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1905년

70) 『황성신문』 1910년 1월 14일 잡보 「校長快舉」.

7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민영은」, 『친일인명사전』 1, 민족문제연구소, 829~831쪽.

72) 조선총독부, 1913, 「오창식」, 『조선신사보감』, 朝鮮文友會, 643쪽.

73) 조선총독부, 1913, 「정용택」, 『조선신사보감』, 朝鮮文友會, 494쪽.

청주로 연고지를 옮긴 다음 교세 확장을 위한 선교활동에 치중하였다. 이때부터 개신교 신자이자 광남학교 설립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했다.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면서 학교는 재정난으로 폐교에 직면하였다. 광남학교를 인수하여 건물을 증축하는 동시에 교장에 취임했다. 교과 과정은 고등과와 보통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였다.⁷⁴⁾ 일제강점기에도 청남학교로 계속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서 찾아진다.

지방관리의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실제로 이들은 교육운동을 주도하는 중심 세력이었다. 그런데 지방관들이 설립한 사립 학교는 지방민에 대한 불법적인 수탈이나 ‘강제기부금’을 모금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교육 내용, 교사 자질, 수용 규모 등을 포함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⁷⁵⁾ 그렇다고 일부 부정적인 현상만으로 이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비판은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평가는 더욱 아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듯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어교육에 편중된 교육도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선진문물 수용을 위한 어학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90% 이상에 달하는 문맹률 상황에서 일본어 보급은 분명 심각한 문제점을 지닌다. 일부 사립학교는 일본어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일어학교였다.⁷⁶⁾ 이는 ‘일어만능시대’에 부응하는 사회분위기나 사립학교 등 설립 취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런 만큼 ‘근대교육 시행=교육구국운동’이라는 인식에 대한 비판은 매우 타당하다. 학교설립취지서와 달리 우리 역사나 고유문화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여과 없이 그대로 주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74) 전순동·최동준, 1999, 「앞 글」, 99~100쪽.

75)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2일 논설 「소위 교육가」; 『大韓每日申報』 1909년 3월 12일 논설 「所謂教育家」.

76) 『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30일 논설 「오늘날 교육의 정신」; 『大韓每日申報』 1909년 6월 30일 논설 「今日教育界의 精神界」.

연합운동회는 지역민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상이었다.⁷⁷⁾ 주민들은 운동회를 통하여 시세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1907년 5월 11일 청주 문암뜰에서 개최된 충청남북도연합대운동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초유의 광경이었다. 운동경기 종목과 심판진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⁷⁸⁾

수백 명 학도들과 수천 명 학부형은 각종 경기를 통하여 친목 도모와 단결심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학도들의 질서정연한 행동과 군사훈련을 방불하게 하는 병식체조는 변화하는 실상을 주민들에게 새삼스럽게 일깨웠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만을 위한 ‘독점적인’ 학습공간만이 아니었다. 지역민과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생활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학교운영비 마련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들 참여는 사회적 책무를 각성시키는 사회교육장이었다.⁷⁹⁾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은 자신감을 배가시켰다. 자녀 교육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주민들 열의와 달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운동은 거의 모색되지 않았다. 보성중학교 교우회는 예외적인 단체였으나 구체적인 활동상을 파악할 수 없다. 아마 실행되지 못한 채 계획으로만 그치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지방관 교체와 동시에 일부 사립학교는 폐교에 직면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⁸⁰⁾ 사립학교설립운동을 주도한 일부 지방관은 불법적인 토색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근대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러한 가운데 확산되어 나갔다.⁸¹⁾ 관찰사 윤철규는 학교

77)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10일 잡보 「仁校運動費捐補」；이하래, 1990, 『한국근대체육사연구』, 지식산업사, 61~63쪽.

78) 『황성신문』 1907년 5월 22일 잡보 「湖中學校大運動」.

79) 김형목, 2005, 「한말 야학운동의 기능과 성격」, 『중앙사론』 21, 한국중앙사학회, 411~413쪽.

80)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28~29일 기사 「警告大韓教育家, 喜懼生」；『만세보』 1906년 9월 1~2일 「碧梧秋月」.

81)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6일 잡보 「自薦沒恥」·「忠察虐民」, 6월 8일 잡보 「爲寡婦哭」；『만세보』 1906년 8월 8일 잡보 「濶倅舊習」, 9월 11일

설립기금 36만 냥과 연합운동회비 20만 냥 모집을 관내 군수에게 하달하였다. 관내 면장들의 지연 요청에도 이를 강행하는 등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⁸²⁾ 그럼에도 향학열 고조와 더불어 근대교육은 진전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식민지사회로 전락하는 가운데 매관매직 성행은 지배체제 문란을 수반하였다. 국익·공익은 이들에게 명분일 뿐이지 실상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었다. 거둬들인 관리등용 개혁은 미사여구에 그치고 말았다.⁸³⁾ 친일세력 발호는 근대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아울러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계성을 안고 있었다.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보통교육을 표방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이를 반증한다. 이는 식민교육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의미를 지닌다.

관료층의 계몽운동 참여는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시류에 편승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방편 중 하나였다.⁸⁴⁾ 반면 근대교육 시행을 변혁운동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국권회복을 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상무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무교육은 이를 반증한다. 더욱이 근대교육 수혜 확대는 민중으로 하여금 시대변화를 인식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자기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였다.⁸⁵⁾ 학교라는 공간을

잡보 「丹倅照律」, 9월 19~21일 논설 「地方弊害救濟」, 11월 8일 잡보 「槐山學校紛爭」, 「丹倅再囚」.

82) 『만세보』 1906년 7월 21일 잡보 「忠民?冤」, 8월 7일 잡보 「兩察任免」, 「急於解任」, 8월 8일 잡보 「忠察後任未定」, 8월 12일 잡보 「尹氏消息詳聞」, 8월 15일 잡보 「忠民上京」, 「忠民相賀」, 9월 11일 잡보 「金暴甚於尹貪」.

83) 『만세보』 1906년 8월 26일 논설 「一進會」, 8월 28일 논설 「公薦」, 9월 25일 논설 「天道教와 一進會」, 26일 논설 「郡守와 稅務官」, 10월 7일 논설 「局外問答」, 11월 6일 논설 「欺瞞風氣」, 11월 13일 논설 「宮內大臣」, 11월 16일 논설 「改善新政」, 12월 2일 논설 「銓考弊風」.

84) 『황성신문』 1906년 5월 15일 기사 「女子教育이 不可無」, 5월 23일 논설 「警告于學校設立之人」, 5월 25일 논설 「警告捐資興學」; 『만세보』 1906년 10월 10~11일 논설 「教育大欺注」; 『제국신문』 1906년 8월 7일 잡보 「忠察任免」.

85) 『만세보』 1906년 8월 17일 논설 「團體」, 8월 21일 논설 「時間經濟」, 8월 24일 논설 「內外法」, 10월 2일 논설 「義務教育」, 11월 9일 논설 「婦人會」.

통한 ‘자기혁신’이나 ‘자기변화’는 현실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시키는 기반이었다. 민족해방운동 진전은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근대교육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채보상운동도 전개되었다. 청주군은 취지서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의연금 모금에 들어갔다. 청주 진위대장 유기원 이하 장졸들은 3월 초순부터 모금이 시작되었다. 이들 318명은 3개월 단연을 결심한 후 1개월에 해당하는 단연금 63환 60전을 보냈다.

…(상략)… 我國一千三百萬圓 借款을 報償이 無期하야 惟我二千萬 同胞에 晝宵憂慮者也러니 徐相敦氏의 斷烟同盟지說이 如披雲看月하야 滿心爽快라 一隊軍人이 奮然發起하야 三朔斷烟條을 計數이온즉 領尉官士卒 三百十八員人에 合爲一百九十圓九十錢이온지라 爲先以一朔條 六十三圓 十錢으로 茲以先送이라.⁸⁶⁾

군인들 위국충정하는 모범적인 의연금 모금은 곧바로 주민들에게 파급되었다. 청주보부상 左支社 두령 김형집 등 129명도 47원 10전을 거두었다.⁸⁷⁾ 청주 청천면 어룡리 출신 이동규는 빈한하여 서울에서 筆工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국채보상 소식에 붓값으로 받은 구화 5원을 황성신문사에 보냈다.⁸⁸⁾ 주민들도 마을별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서면 목과동 밀양 박씨 박찬진과 종손 박남규의 열성적인 활동은 귀감으로서 널리 칭송되었다. 이들은 100원에 달하는 거금을 모금한 후 직접 상경하여 황성신문사에 전달하였다.⁸⁹⁾ 근대교육 참여를 통한 현실인식 심화는 이를 가능하게 요

86)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7일 잡보 「淸隊出義」, 3월 16일 광고 ; 김형목, 2011, 「앞 글」, 56~58쪽.

87) 『황성신문』 1907년 3월 18일 광고, 5월 25일 광고 ;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19일 잡보 「淸州郡國債報償會趣旨書」, 4월 28일 잡보 「淸隊斷烟」, 4월 30일 광고, 5월 15일 광고.

88)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1일 잡보 「賣筆捐助」.

인 중 하나였다.

이와 더불어 기호지방 흥학을 위한 기호흥학회 청주지회도 조직되었다. 근대교육 수혜를 받은 새로운 학생층 형성은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든든한 배경임에 틀림없다. 민영은 등 일부 지회원을 제외한 이들의 활동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⁹⁰⁾ 향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상을 파악해야 청주지역 계몽운동 실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관건이다.

많은 한계에도 청주지역 근대교육은 이곳 계몽운동을 추동하는 에너지원이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근래에 충청북도 각처에서 교육의 풍조가 날마다 진보되다는 소식이 연속하여 와서 우리는 환영하는 마음을 감동하여 일으키는 도다. 대개 충청북도는 자래로 사환가의 세력이 심히 강하고 유교를 믿는 마음이 심히 굳은 지방이라. 그런고로 수구의 폐단이 심하여 혹 시전·서전·예기·주역의 경서 외에는 가히 배울만한 것이 없는 줄로 아는 고로 새교육의 진취됨이 심히 더디어 ... (중략)... 새교육을 진흥하는 소식이 있는 중에 청주에 사는 이장규씨는 유명한 선비라. 전일의 숙된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의 새로 힘쓸 일을 알아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털어 학교에 반치고 그 정성을 다하여 학교를 찬성한다 하니. ... (하략)...⁹¹⁾

청주 출신 개신유학자 이장규에 대한 찬사는 곧 청주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중심지임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향후 이들 활동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청주지역 계몽운동 전반에 관한 사실이 보다 선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89) 『황성신문』 1907년 4월 10일 잡보 「林門出義」.

90) 편집부, 「회중기사」, 『기호흥학회월보(영인본)』 상, 57-65쪽 ; 편집부, 「회중기사」, 『기호흥학회월보(영인본)』 하, 384쪽.

91)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8일 논설 「충청북도를 향하여 한 번 치하하는 말을 붓치노라」.

V. 맺음말

청주지역 근대교육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 첫걸음은 서울에서 근대교육을 수학한 신흥우·신백우·신채호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중학교’로 출발한 문동학교는 주민과 시세 변화를 알려주는 소통을 위한 현장이었다. 러일전쟁 발발과 을사늑약은 근대교육을 국권회복운동 일환으로 전환시키는 계기였다. 개신교 신자들에 의한 광남학교는 새로운 문물 유입을 위한 창구이자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청주군수 민영은과 계몽론자에 의해 설립된 청호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인 보성중학교로 발전한다. 교원양성에 치중하는 등 고조되는 교육열에 부응하려는 중장기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재경 세력과 교류를 모색하기 위한 교우회 조직은 변화에 부응하려는 일환이었다. 덕촌하동 정씨 문중도 사숙을 근대교육기관인 덕신학교로 과감한 교과과정 개편하였다. 기호흥학회 청주지회는 강연회나 연설회 개최하는 등 민지계발에 앞장섰다. 이리하여 청주지역 사립학교설립운동은 1908~1910년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도내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었다. 서울·경기와 이북지방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었다. 견고한 전통은 근대교육 시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호흥학회를 제외한 계몽단체 지회 조직은 전혀 없었다. 재경 세력과 연대도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사립학교설립운동이나 야학운동 등 근대교육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시세변화를 인식하는 가운데 지방관이나 개신유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근대교육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명륜학교 설립은 개신유학자의 존재와 사회적인 책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곳 근대교육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여성교육이 매우 부진한 점이다. 이는 청주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삼중지도나 남존여비의 강고한 인습은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부재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

고 말했다. 극히 일부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이를 반증한다. 그런데 진천이나 충주 등지에는 여성교육이 진행된 사실과 대비된다.

둘째는 민지계발을 위한 초등교육인 보통교육에 치중되었다. 근대교육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마저도 제대로 수급할 수 없었다. 보성중학교나 일부 고등과 출신자들로 충원하거나 다른 지방에서 초빙하였다. 후자는 월급 등 운영비 과다로 이어지는 등 재정적인 압박을 초래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합되는 상황은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셋째는 일본인에 의한 일본어 보급이다. 증폭된 배일감정과 달리 일본어 보급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외국어 교육은 새로운 사조 수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임에 틀림없다. 일본어에 편중된 교육과정은 친일세력 육성이라는 문제로 귀결된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친일세력 발호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이른바 ‘일본어만능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일본어 교육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넷째는 소통과 교류를 위한 보성중학교교우회 조직이다. 교직원·졸업생·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지방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원양성을 위한 방안까지 모색할 정도였다. 일본유학생 단지동맹에 대한 의연금 모집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병전쟁과 근대교육은 대립적인 측면과 아울러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다행히 청주지역에서 이와 같은 갈등적인 모습은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민의 현실인식을 반영한 사실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논문접수 : 2016.10.31, 심사시작 : 2016.11.02, 심사완료 : 2016.11.10.]

주제어 : 민지계발, 문동학교, 덕신학교, 청남학교, 보성중학교, 보성중학교교우회, 기호흥학회 청주지회, 국채보상운동

【참고문헌】

- 『고종실록』 『간재선생전집』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만세보』 『기호
홍학회월보』 『기독교신보』 『매일신보』 『제국신문』
大熊春峰, 1923, 『청주연혁지』.
조선총독부, 1913, 『조선신사보감』, 朝鮮文友會.
- 국사편찬위원회, 1965, 『한국독립운동사』 1, 탐구당.
권기훈, 2007, 『심산 김창숙 연구』, 선인.
김동면, 1981, 「협성회의 사상적 연구」, 『사학지』 15, 단국대.
김상기, 1984, 「한말 사립학교의 설립이념과 신교육 구국운동」, 『청계
사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영우, 1986,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 II」, 『교육연구』 3, 공주
사범대.
김정해, 1987, 「1895~1910년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역사교육논집
』 11, 경북대.
김형목, 1998, 「사립홍화학교(1898~1911)의 근대교육사상 위치」, 『백산
학보』 50, 백산학회.
김형목, 1997, 「자강운동기 한성부민회의 의무교육 시행과 성격」, 『중
양사론』 9, 중앙대.
김형목, 2000, 「한말·1910년대 여자야학의 성격」, 『중앙사론』 14, 한
국중앙사학회.
김형목, 2001, 『1910년 전후 야학운동 실태와 기능』, 중앙대박사학위논
문.
김형목, 2001, 「기호홍학회 충남지방 지회 활동과 성격」, 『중앙사론』
15, 한국중앙사학회.
김형목, 2001, 「한말 해서지방 야학운동의 실태와 운영주체」, 『백산학
보』 61, 백산학회.

- 김형목, 2002, 「한말 충북지방의 사립학교설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한국근현대사학회.
- 김형목, 2002, 「한말 충청도 야학운동의 주체와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형목, 2005, 「대한제국기 강화지역의 사립학교설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형목, 2005,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 김형목, 2005, 「한말 야학운동의 기능과 성격」, 『중앙사론』 21, 한국중앙사학회.
- 김형목, 2011, 「충청북도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김형목, 2013, 「한말 충북지역의 국권회복운동」,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 김형목, 2015, 「옥천의 근대교육운동」, 『옥천군지-역사와 전통』 II, 옥천군.
- 김형목, 2016, 「함경북도 경성의 사립함일학교유지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호일, 2005, 「개화·애국계몽기의 학생운동」, 『한국근대 학생운동사』, 선인.
- 김희곤, 1998, 「안동 협동학교의 독립운동」, 『우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 II, 나남.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민족교육의 전개와 항일투쟁」, 『독립운동사-문화투쟁사-』 8.
- 박결순, 2016, 「정순만의 교육구국사상과 덕신학교」, 『덕은재(덕신학교)복원 기념 학술세미나(발표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박민영, 1996, 「1908년 경성의병의 편성과 대한협회 경성지회」, 『한국근현대사연구』 4,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박민영, 1999,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

- 박은식전서편찬위원회, 1975, 『박은식전서』 중, 단국대출판부.
- 손인수, 1971,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출판부.
- 신용하, 1982, 『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서울대출판부.
- 이용철, 2016, 「대한제국기 민영은의 관직활동과 계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 이학래, 1990, 『한국근대체육사연구』, 지식산업사.
- 임춘수, 1990, 「신규식 신채호 등의 산동문중 개화사례」, 『윤병석교수 화갑기념한국근현대사논총』, 동간행위원회.
- 전순동·최동준, 1999,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 -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중원문화논총』 2·3합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정영희, 1985, 「협성회 연구」, 『논문집』 9, 인천대.
- 정영희, 1999, 「사립홍화학교에 관한 연구」, 『실학사상연구』 13, 무악실학회.
- 조재곤, 2001,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혜안.
- 청주지편찬위원회, 1961, 『청주지』, 청주시.
- 청주시지편찬위원회, 1976, 『청주시지』.
- 청주시지편찬위원회, 1997, 『청주시지』 상.
-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1975, 「충북의 신교육 발달상황」, 『충청북도지』, 충청북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979, 『충북교육사』.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친일인명사전』 1, 민족문제연구소.
-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역사편찬위원회, 1998, 『충북노회사료집』.
- 한규원, 1997, 『개화기 한국기독교 민족교육의 연구』, 국학자료원.

【Abstract】

The modern education and significance of thought of local movement in Cheong-ju during the Great Han Empire

Kim, Hyung-mog

The modern education in Cheong-ju began with private schools by 20C. The 'Mundong School' which was started in 'Munjung School' was a place of communication informing change of residents and social situation. The outbreak of Russo-Japanese War and Protectorate Treaty of 1905 were opportunities to convert modern education into a part of restoration movement for national right. Kwang-nam school was a window for introduction of new culture.

Cheong-ho school developed into Bo-seong middle school which was a secondary education institute. It started with meeting fervor for education focusing training of teacher. The seeking for communication with party in Gyeong-seong led to alumni association. The family of Cheong of Ha-dong resolutely reorganized Deok-shin School. The Cheong-ju branch of Gihohunghakhui took the initiative in developing the intellect of the people holding lectures and speech sessions. The establishing movement of private school in Cheong-ju reached the big time in 1908-1910.

There were not organization of branch of enlightenment group

except Gihohunghakhui and the solidarity with party in Gyeong-seong did not develop widely. The modern education around Confucian scholars converting to Protestantism cognizing the change of social situations had many implications. The establishment of Myeong-nyun School saw the existence of Confucian scholars convertinf to Protestantism and their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s in the following of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movement during the Great Han Empire.

First, the education of women was very dull. The strong old customs such as way of three obediences and predominance of man over woman were obstacles on the women education. However, education of women in Jin-cheon and Chung-ju was proceeded in contrast. Second, it focused on a common education for developing the intellect of the people. Third, it was a dissemination of Japanese language by Japanese. The weighted education towards Japanese language was concluded in training of pro-Japanese groups. The education for Japanese language ought to come under criticism coming an age of Japanese popularity.

The private schools established by Confucian scholars converting to Protestantism or family was used to spot of education and living of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The united sports day was a festival for unity of residents. The speech session proceeded after ceremony awakened the change of social situations and imprinted the importance of modern education. This is why we pay attention to modern education in Cheong-ju.

keywords : developing the intellect of the people, Mun-dong School, Deok-Shin School, Cheong-nam School, Bo-seong Middle School, a graduates' association of Bo-seong Middle School,

Cheong-ju branch of Gihohunghakhui,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